

2022-03-09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의
후유증

영호남 장벽 여전 서울은 한강 벨트로
나뉘어 세대 성별 차이도 뚜렷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을 두고도 결국은
과거 방식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두고도 찍는
사람들이 많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도 바꾸라고 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진 자들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그럼 뭘 해야 되나?

도산 선생님!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신 당신이여!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

2)

3) 윤, 서울서 이보다 31 만표 많아..한강변 중심 14 개구서 이겨

오현석 입력 2022. 03. 11. 00:02 수정 2022. 03. 11. 06:11 댓글 50 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비호감 대선', 하지만 이 대선에서 역설적으로 최다 득표 기록이 배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 20 대 대선에서 1639 만 4815 표(48.56%)를 득표했다. 앞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2012 년 대선에서 1577 만 3128 표를 받았는데 윤 당선인은 이보다 60 만 표가 늘었다. 2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1614 만 7738 표(47.83%)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낙선했지만,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됐고, 역대 대선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이기도 하다. 1639 만 표와 1614 만 표로 대한민국이 둘로 쪼갤라진 모양새다.

이런 득표수는 양측 지지자가 서로에 대한 '반감 투표'에 나서며 총결집한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24 만 7077 표(득표율 0.73%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결정지은 표심을 분석했다.

20 대 대선 개표 결과

① 영호남 장벽 여전=선거운동 기간 윤 당선인은 '보수의 무덤'이던 호남에 공을 들였고, 민주당은 최초의 'TK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호남 장벽은 여전했다. 윤 당선인은 영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의 고향(안동)이 속한 경북에서 72.76%를 얻은 것을 비롯해 대구(75.14%)·부산(58.25%)·경남(58.24%)·울산(54.41%)에서 모두 득표율 50%를 넘겼다. 영남에서 윤 당선인은 이 후보보다 총 269 만 5973 표를 더 챙겼다.

반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3 곳 모두 8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득표율은 84.82%였고, 전남·전북 득표율도 각각 86.10%, 82.98%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윤 당선인보다 249 만여 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균형추를 맞췄다.

② 서울은 한강 벨트로 나뉘어=영호남 표심이 반반씩 나뉜 상황에서 양당이 집중한 승부처는 수도권이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6%를 득표하며 이 후보(45.73%)보다 31 만여 표 더 얻었으나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25 개 구를 휩쓸었던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엔 윤 당선인이 14 개 구에서의 우위에 그쳤다. 특히 윤 당선인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 3 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강동·동작·영등포 등 한강변 주변 지역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에

20대 대선 개표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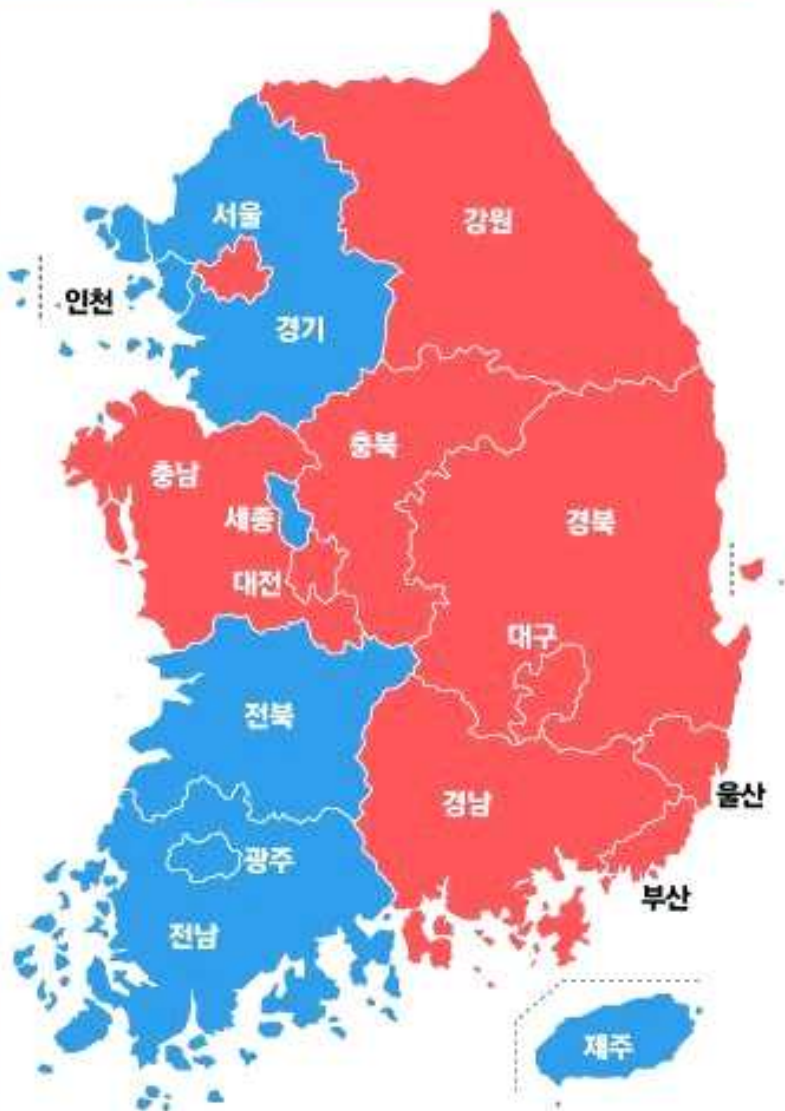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47.83

48.56

서울	45.73	50.56
부산	38.15	58.25
대구	21.60	75.14
인천	48.91	47.05
광주	84.82	12.72
대전	46.44	49.55
울산	40.79	54.41
세종	51.91	44.14
경기	50.94	45.62
강원	41.72	54.18
충북	45.12	50.67
충남	44.96	51.08
전북	82.98	14.42
전남	86.10	11.44
경북	23.80	72.76
경남	37.38	58.24
제주	52.59	42.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he JoongAng

이 후보는 노원·도봉·강북과 구로·금천·관악 등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을 회복했다.

20 대 대선 서울시 개표 결과

이 후보는 자신이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보다 46 만 2810 표를 더 얻었다. 인천에서도 이 후보의 득표수가 3 만 4760 표 더 많았다. 이 후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당선인보다 18 만 6804 표를 더 얻었다.

③ 캐스팅보트가 된 충청=동서가 갈린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로 승부를 가른 건 중원의 충청권 민심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전(49.55%)·충북(50.67%)·충남(51.08%)에서 고르게 5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대전(46.44%)·충북(45.12%)·충남(44.96%)에서 4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5%포인트 차이를 극복하기엔 다소 역부족이었다. 윤 당선인이 충청권에서 더 얻은 14 만 7612 표는 '25 만 표 차' 승리의 주춧돌이 됐다.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윤 당선인과 '충청의 사위'라 자신을 부른 이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자유민주연합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정당이 있던 충청권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그때그때 지지하는 전형적인 '스윙보터(swing voter)' 지역"이라며 "충청권에서 진 사람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는 관례는 이번에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④ 세대·성별 차이도 뚜렷=이번 대선의 방송 3 사 출구조사에선 지역별 표심 격차와 함께 세대·성별 충돌도 함께 부각됐다. 60 대 이상은 67.1%가 윤 당선인을 지지했고, 40 대는 60.5%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같은 세대가 확연한 성별 격차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20 대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고, 20 대 여성은 58.0%가 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과 세대, 때로는 성별로 쪼개진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을 놓고 학계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 의견도 나왔다. 상대를 죽이려고 달려들다 자신이 죽는 드라마 속 게임처럼,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만연하면 선거에 승리한 진영도 결국엔 불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에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며 "특히 강성 보수 지지자들에게 포획되지 않고 그들을 잘 절제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20대 대선 서울시 개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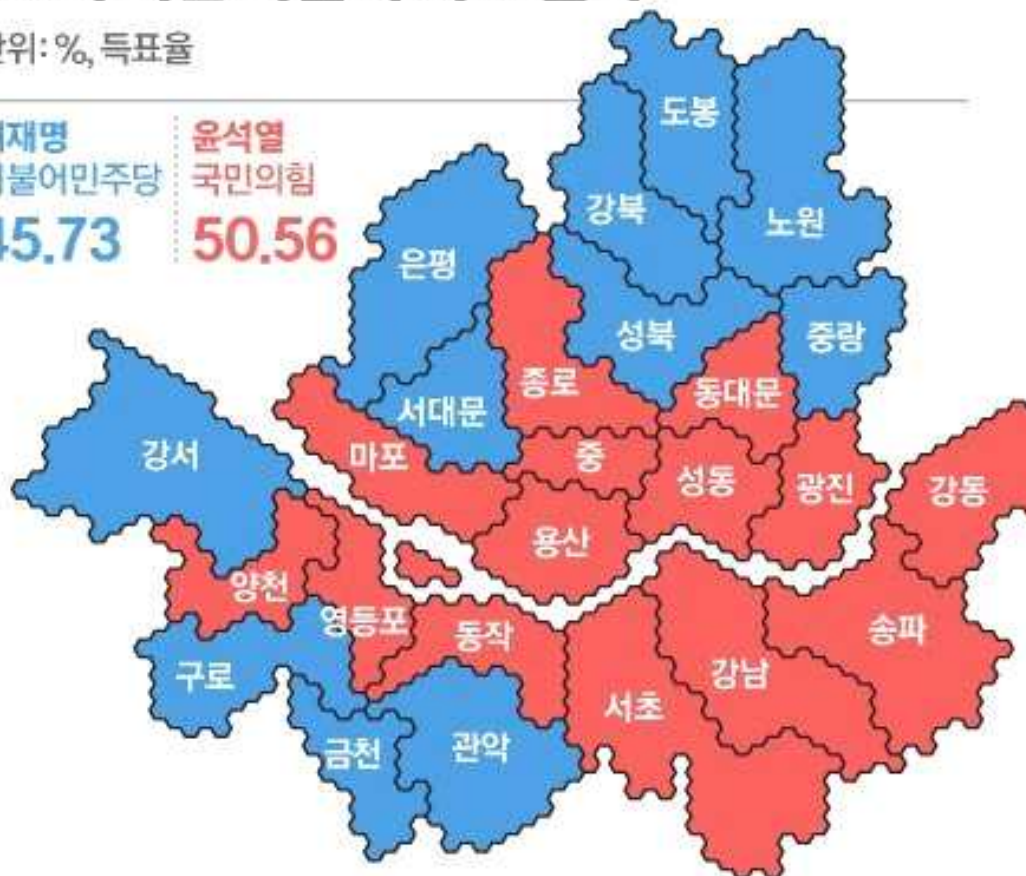
단위: %, 득표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45.73

윤석열
국민의힘

50.56



종로구	46.42	49.48
중구	45.42	50.96
용산구	39.86	56.44
성동구	43.23	53.20
광진구	47.19	48.82
동대문구	47.10	49.16
중랑구	50.45	45.73
성북구	49.31	46.67
강북구	52.32	43.82
도봉구	49.75	46.59
노원구	48.94	47.22
은평구	51.26	44.65
서대문구	48.33	47.47

마포구	46.50	49.03
양천구	46.39	50.13
강서구	49.17	46.97
구로구	49.19	47.01
금천구	51.56	44.50
영등포구	44.60	51.64
동작구	45.74	50.51
관악구	50.32	45.16
서초구	32.18	65.13
강남구	30.35	67.01
송파구	40.15	56.76
강동구	44.80	51.70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